

“위안부 피해자 연기 감당 할 수 없는 슬픔”

27일 개봉 영화 ‘허스토리’ 김해숙
“배우로서 항상 새로운 도전 꿈꿔요”



“슬픔이 너무 깊었어요.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중견 배우 김해숙(63·사진)은 영화 ‘허스토리’를 끝내고 몹시 아팠다.

슬픔이 몸과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무력감이 찾아왔다. 기운을 차리려 곧바로 다른 작품에서 정반대의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그 뒤로도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데뷔 44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평생 처음 겪은 경험이라 당황했어요. 저도 몰랐지만, 굉장하고 통스러운 작업이었나 봐요.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여자잖아요. 여행을 다녀온 뒤에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8일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해숙은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달 27일 개봉하는 ‘허스토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인 실화를 그린다. 김해숙은 아픈 이들을 둔 위안부 피해자 배경길 역할을 맡았다.

오랫동안 남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배경길은 일본 법정에서 그동안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아픈 과거를 증언한다.



“저 자신부터 비워야 했어요. 특히 법정 장면을 찍을 때는 그분들의 마음을 0.01%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생각하며 저 역시 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영화를 보면 김해숙은 입술이 바삭 말라 있고,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입안에서 머문다. 분노와 슬픔은 내면으로 삭인다. “온갖 고초를 겪은 그분들이라면 매년 울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토록 오랜 시간 연기해온 김해숙이지만,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고개가 숙어진다”고 했다.

김해숙은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KBS 어린이합창단 출신인 그는 고교 시절 음악 선생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하려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무남독녀인 그가 음악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다 대입 재수생 시절 친구 따라 우연히 탤런트 공채 시험을 봤다가 덜컥 붙었다고 한다.

“연기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학창 시절 방송반을 하면서 콩트 등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됐나 봐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다가 40대 중반이 돼서야

제가 연기를 너무 사랑하고,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 출연작만 100여 편. 영화 ‘희생부활자’(2017), ‘재삼’(2017), ‘아까씨’(2016), ‘암살’(2015) 등 장르와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열연했다. 특히 온갖 엄마 역은 도맡아 해 그 앞에는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아직 제가 안 해본 엄마 역이 있을 거예요. 모정은 똑같지만, 엄마는 다 다르죠.”

그만의 연기관도 확실했다. “엄마 역할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젊은 배우들도 사랑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들이 저를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편이에요.”

40년 넘게 촬영장과 집만 오가며 살았다는 그는 지금도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주디 덴치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고, 누아르도 해보고 싶어요. 이전의 제 모습을 부숴버리는 캐릭터를 항상 갈망하죠.”

장근석 생일 사진전 수익금 보육시설에 기부

6년째 꾸준히 온정 이어와

한류스타 장근석(사진)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모교인 한양대 내 올림픽홀에서 '2018 장근석 생일 기념 나눔 사진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입장료와 모금액은 모두 기부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 행사는 지난 1년간 장근석의 활약상을 팬이 직접 찍어 전시하는 형식으로, 기부 역시 매년 이뤄져 왔다.

2012년 장근석의 생일을 기념한 '926 이벤트'로 팬들과 장근석이 각각 926만원씩 아동보육시설 남산원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도 장근석과 팬들이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2014년에는 사진전의 수익금 전액인 162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15년 3400만원, 2016년 5000만원, 2017년에는 무려 7500만원이 모였다.

이에 남산원은 건물 내 강당 이름을 '장근석



촬영 크레딧: SSM | 촬영: 최지혜(왼쪽), 장영진(가운데), 문유민(오른쪽), 송재영(가운데)

‘독전’ 출연 모델 강승현, “마지막 작품 되지 않도록”

“코미디 영화 하고 싶어요”

“지금 목표는 ‘독전’이 제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2017년을 ‘독전’과 함께 보냈는데 ‘독전’ 덕분에 영화에 입하는 자세와 어떤 고민을 해야 이 세계에서 버틸 수 있을지를 배웠어요.”

개봉 후 3주 만에 450만 명을 불러들이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독전’에는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여성 캐릭터가 대거 등장한다. 이 가운데 소연을 연기한 강승현(사진)은 경력 11년 차의 톱 모델 출신이다. 그는 2008년 포드 세계 슈퍼모델 대회에서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톱 모델로 활약했다.

모델로서 정점은 선 바 있는 그녀가 연예계를 떠나 3주 간격으로 개봉한 ‘챔피언’과 ‘독전’에 연이어 출연하며 신인 배우로 데뷔했다.

1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승현은 “극장에 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무겁고 긴장되기도 했다”며 스크린 데뷔 소감을 밝혔다.

차기작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코미디’ 영



회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다. “수준 있는 웃음을 추구하는 하이 코미디 말고 대놓고 웃기는 코미디 영화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독전’이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다른 작품으로도 인사드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KBS 뉴스특보 2018 북미정상회담		50 MBC 뉴스특보 세기의 담판 2018 북미정상회담	40 SBS뉴스특보 2018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1~4부
8		00 다큐멘터리 3일		
9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10		40 지구촌 뉴스		
11		00 너도 인간이니(재)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1		00 1대 100(재)		
2		10 생활의 발견(재)		00 특집 뉴스브리핑 -2018 북미평화회담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5				00 SBS뉴스특보 2018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5부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7		50 인형의 집	00 특집 MBC 뉴스데스크	30 특집 SBS 8 뉴스 -2018 북미평화회담
8	00 특집 KBS 뉴스 9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볼쇼이영표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40 KBC 8 뉴스
9				00 SBS뉴스특보 2018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그리다 6~7부
10	00 특집대담 세기의 북미회담 한반도 평화시대 열리나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11	00 특집 KBS 뉴스라인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세기의 담판 2018 북미정상회담	
12		4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8부작 로드 투 러시아	35 검법남녀(재)	20 특집 나이트라인 -2018 북미평화회담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자막방송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박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황금보다 아름다운 골든 트라이앵글 2부 아시아 3개국, 국경을 넘다>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파프리카	<은둔의 낙원 2부 그 여자의 숲>
09:00 뽕뽕뽕 뽕뽕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한국사 오천년 2부>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심만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55 박치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이돌김치와 오이송송이>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4:45 지식채널e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4월 29일 乙亥)

子 36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주세요. 48년생 길으로는 멀정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60년생 명칭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라. 72년생 생 주저하지 말라. 84년생 모순점은 확실하게 배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10, 16	午 42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질 것이다. 54년생 매우 구체적이야만 한다. 66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자. 78년생 전혀 아랑곳 하지 말라. 90년생 흉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9, 63
丑 37년생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49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61년생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73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리라. 85년생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3, 09	未 43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55년생 고진감래하는 격이다. 67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차겠다. 79년생 근본적인 원인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91년생 갑갑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1, 91
寅 38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50년생 외면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62년생 노력 못 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준다. 74년생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리라. 86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쟁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10	申 44년생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56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68년생 마음이 끌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80년생 현상만 유지하자. 92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56, 78
卯 39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 할 수 있다. 51년생 생활의 기운으로 표리가 충만해지리라. 63년생 한 템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75년생 형태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87년생 얼마나 깊이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47, 50	酉 45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운 것이 나라. 57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69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하라. 81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93년생 슬모가 없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3
辰 40년생 기묘하게 연계 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2년생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64년생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76년생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었다. 88년생 안정세를 띠기 시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15	戌 34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운 것이 나라. 57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69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하라. 81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93년생 슬모가 없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3
巳 41년생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 하겠다. 65년생 단순 판단하지 말라. 77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89년생 크게 열려할 바는 아니니 안심하자. 행운의 숫자 : 07, 14	亥 35년생 돈은 생기지만 지출되는 액수가 훨씬 더 크다. 47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59년생 급변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자. 71년생 가치를 이뤄내는 판도이다. 83년생 명략해야만 뒤달을 없앨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40